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제 19호> 2017년 12월 발행

「What`s Up, OITA!」는 세계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오이타와 인연있는 여러분들께, 일본 오이타현의 ‘지금’을 전달해드립니다.



【인사】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과장 토쿠노 미츠루(徳野 満)

11월 2일, 럭비 월드컵 2019 일본 대회 시합 일정이 발표되었습니다. 2019년 10월에는 오이타에서 결승 토너먼트 2경기를 포함한 5경기의 시합이 개최될 예정으로 해외에서도 주목을 모으고 있습니다. 개최 준비에 박차를 가하며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시합을 관람한 후, 오이타현내를 관광할 수 있도록 현 전체가 힘을 합쳐 홍보하고자 합니다.

<오이타현 주목 기사>

주일 각국 대사 오이타현 각지 시찰



외무성과의 공동 주최로 지난 10월 30일부터 1박 2일 일정의 주일 각국 대사 지방 시찰을 실시했습니다. 주일 각국 대사의 지방 시찰은 1988년 이후 일본 지방의 매력 발신과 동시에 이해와 친근감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오이타현에서 개최되는 것은 3번째입니다.

참가자는 인도, 핀란드, 나이지리아, 가나, 케냐, 태국 등 15개국의 대사를 포함해 총 23명으로 첫 날은 우사신궁과 유후인 온천 등을 방문하였고, 저녁에는 오이타현 지사 주최의 환영 리셉션이 있었습니다. 이튿날에는 벳푸 온천과 히타 배 농원 등을 방문하고 이후 APU에서 유학생들과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오이타현은 2018년 세계 온천치 서밋과 국민문화제, 2019년 럭비월드컵 등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찰을 통해 온천을 비롯한 오이타의 자연과 역사, 문화, 음식 등 다양한 매력을 세계로 알리고자 합니다.

럭비 월드컵 시합 개최일정 결정

11월 2일, 럭비 월드컵 2019 일본 대회 시합 일정이 발표됐습니다. 오이타에서는 세계 랭킹 1위인 뉴질랜드와 3위의 호주, 7위의 웨일즈, 9위의 피지의 예선 3시합과 준준결승 2시합 총 5시합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예선】

2019년 10월 2일 (수요일) 19시 15분 조 B 뉴질랜드 대 패배부활 예선 우승 팀

2019년 10월 5일 (토요일) 14시 15분 조 D 호주 대 미국 지구 2위 팀

2019년 10월 9일 (수요일) 18시 45분 조 D 웨일즈 대 피지

【결승 토너먼트】

2019년 10월 19일 (토요일) 16시 15분 준준결승 조 C 1위 대 조 D 2위

2019년 10월 20일 (일요일) 16시 15분 준준결승 조 D 1위 대 조 C 2위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제 19호> 2017년 12월 발행

오이타 100% 즐기기! 히타 텐료 마츠리 (天領まつり)



H
I
T
A

히타의 작은 교토로 불리는 마메다마치는 에도시대 막부의 직할 영지로서 규슈의 경제, 문화 중심지로 발달한 곳입니다. 국가중요전통건물보존지구로도 지정된 이 곳에서 매년 11월, 번영했던 그 당시의 모습을 재현하는 ‘텐료 마츠리’가 열립니다.

올해로 38회 째를 맞이한 ‘히타 텐료 마츠리’는 주말 이틀동안 열리며, 릴레이마라톤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떡과 사탕을 던지는 모치마키(餅巻き), 기모노 체험, 베틀시장 등 현내외 관광객들이 모여 어느 때 보다 활기찬 마메다마치의 모습을 즐길 수 있는 시기입니다.

경제적 문화적으로도 번영했던 히타 지역에는 당시 부유했던 상인들이 수집해두었던 히나 인형이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그 히나 인형들을 모아 전시해둔 곳이 마메다마치에 있는 히나고텐(雛御殿)입니다. 엄청난 수의 히나 인형이 방 한 가득 전시되어 있는데 그 수가 무려 3,500개라고 합니다. 온통 히나 인형으로 둘러싸인 방 안에서 있으면 웬지 모를 섬뜩한 기분이 들기도 했지만, 그 중에는 디즈니나 동물 캐릭터로 만든 귀여운 히나 인형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입장료는 300엔이나, 텐료 마츠리 기간에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H
I
N
A



M
A



T
S
U



R
I

에도시대 막부의 직할 영지인 텐료 히타라는 이름에서 온 ‘텐료 마츠리’는 에도시대의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행렬을 하는 ‘시대 행렬’이 펼쳐집니다. 가장 먼저 에도시대 말기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속예능의 행렬이 시작되며 그 뒤로 규슈의 텐료를 통괄한 관리가 히타에 입성하는 모습을 재현한 행렬이 이어집니다. 특히 이 행렬의 주역인 관리와 그 부인은 일반 공모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맡게됩니다. 또 올해의 공주 역은 2017 샷포로 맥주 이미지 걸이 맡았으며, 히타시무용연맹의 무용을 마지막으로 행렬은 끝이 납니다. 사극에서나 봐왔던 ‘시대 행렬’을 에도시대의 정취가 남아있는 마메다마치에서 보고 있으니, 마치 그 시대 속으로 타임슬립해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제 19호> 2017년 12월 발행

오이타 100% 즐기기! 히타 센넨아카리 (千年あかり)



‘오이타 3대 대나무 등불 축제’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다케타시의 치쿠라쿠(竹樂), 우스키시의 타케요이(竹宵), 그리고 히타시의 ‘센넨 아카리’ (千年あかり) 를 가리킵니다. 이 중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한 히타시의 ‘센넨 아카리’는 ‘천년의 빛’이라는 뜻으로, 텐료 마츠리와 동시에 개최되며, 텐료 마츠리 하루 전인 금요일부터 일요일에 걸쳐 3일간 열립니다. 3만 개가 넘는 대나무 등불이 카게츠 강과 마메다마치 주변을 환하게 밝혀주며 사람들을 매료시킵니다. 따뜻한 대나무 등불이 추위로 잊게 만드는데요. 특히 카게츠강 주변을 가득 메운 대나무 등불은 바라보고만 있어도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이 밖에도 쿤초 양조장 안에는 빈 술병으로 연출한 알록달록한 조명과 水(물 수)자 모양으로 두면서 양조장만의 특징을 살린 대나무 등불을 전시해놓고 있었습니다. 히타시는 지난 7월 호우 피해를 입은 곳으로, 이번 센넨아카리에서는 대나무 등불 사이사이에 힘내자! 히타 (頑張ろう! 日田) 라는 문구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또 히타시의 부흥을 위해 올해는 아오모리 히로사키시에서 히로사키 네부타도 등장하는 등 지난 재해의 상처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매우 활기 넘치는 축제였습니다.

오이타 100% 즐기기! 오이타현립미술관 ‘이사무 노구치 전’



20세기를 대표하는 조각가 이사무 노구치(1904-1988년)는 조각 뿐 아니라 무대 미술, 가구 디자인, 도예 등 폭 넓은 장르에서 활동을 전개한 예술가입니다. 오이타현립미술관에서 개최되는 ‘이사무 노구치 전’은 추상 조각을 포함한 약 80점의 작품을 전시해두고 있습니다.

돌, 나무, 금속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 수 많은 작품을 만들고 공원과 정원까지 설계하는 등 이사무 노구치의 다재다능한 모습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전시회였습니다. 또 대표작 중 하나이자, 인테리어 조명으로 매우 유명한 조명등 AKARI는 일본 전통 공예와 현대적인 디자인, 따뜻한 빛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작품이었습니다. 참고로 AKARI 조명은 뮤지엄샵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20世紀の総合芸術家
イサム・ノグチ
 —彫刻から身体・庭へ—
 2017年11月17日(金) — 2018年1月21日(日)
 大分県立美術館 1階 展示室A

<20세기 종합예술가 이사무 노구치 전>

기간 : 2017년 11월 17일 ~ 2018년 1월 21일

장소 : 오이타현립미술관 1층 전시실A

관람료 : 일반 1,000엔, 학생 500엔



어느 덧 2017년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에도 What`s Up, OITA! 다국어판 취재를 통해 오이타의 이곳저곳을 다닐 수 있었는데요. 2018년에도 다양한 오이타의 모습과 소식을 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원 김진아

